

《咸興內外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實景山水畫의 構圖

李 秀 美

- I. 序論
- II. 《咸興內外十景圖》와 南九萬과의 관계
- III. 《咸興內外十景圖》의 製作時期
- IV. 《咸興內外十景圖》의 구도
- V. 《咸興內外十景圖》를 통해 본 南九萬題 〈咸興十景圖〉, 〈北關十景圖〉의 성격
- VI. 結論

I. 序論

근래 회화사 연구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생김새 등을 산수화를 곁들여서 입체적으로 나타낸 지도를 '繪畫式 地圖'라 분류하고 지도에 보이는 미술사적 정보에 주목하고 있다.¹ 이러한 경향은 일반 회화작품과 별개로 선조들이 실제 산천을 재현하는 한 경향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¹ 이러한 연구성과로 安輝濬, 「韓國의 古地圖와 繪畫」, 『海東地圖 解說·索引』(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pp. 48-59; 安輝濬, 「옛지도와 회화」,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효형출판사, 1999), pp. 185-219; 李泰浩, 「朝鮮時代地圖의 繪畫性」, 『한국의 옛 地圖 資料篇』(嶺南大學校博物館, 1998), pp. 139-147 참조.

을 일관되어 추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소개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咸興內外十景圖》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며 地圖的 특성과 繪畫的 특성이 상호 영향을 주며 제작되는 17세기 후반 實景山水畫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²

이 자료를 검토할 때에 18세기 진경산수화의 先例로서 접근하기보다는 17세기 회화사적 맥락하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함흥내외십경도》에 보이는 17세기 후반 실경산수화의 구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함흥내외십경도》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추정해 보고, 이후 《함흥내외십경도》의 구도를 분류하여 이를 17세기 후반 실경산수화와 관련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17세기 후반 실경산수화에 보이는 다양한 구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양식의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을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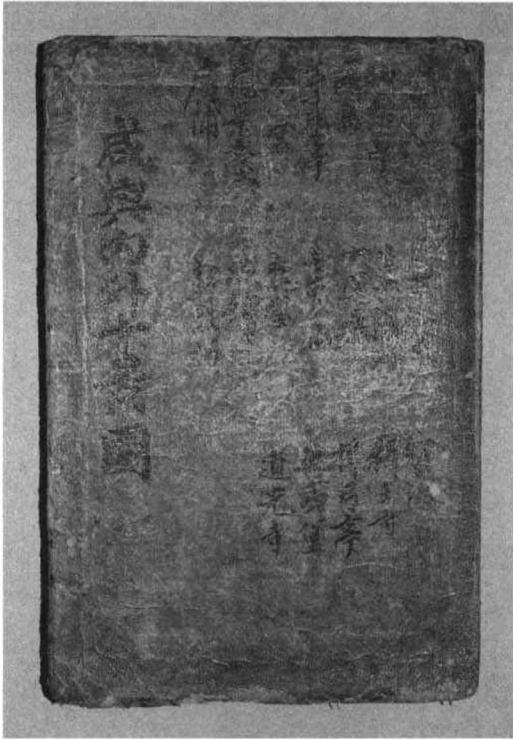
II. 《咸興內外十景圖》와 南九萬과의 관계

《함흥내외십경도》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유물번호 신15776)으로 紙本彩色이며, 51.7×34cm 크기의 19개 화면으로 이루어진 畫帖이다. 畫面은 두 번 접혀 있어서 휴대하기 간편하게 표주되어 있다. 표지에는 “咸興內外十景圖”라 제목이 써 있고 화첩에 등장하는 19 곳(함흥 지역 9곳, 그밖의 함경도 지역 10곳)의 장소명이 다음과 같은 차례로 墨書되어 있다
도 1.

樂民樓, 知樂亭, 國島, 擊毬亭, 本宮, 龜景臺, 廣浦, 金水窟, 白岳瀑布, 一遇善, 七寶山, 龍堂, 城鎮
津, 彰烈祠, 鶴浦, 釋王寺, 掛弓亭, 撫夷堡, 道光寺

《咸興內外十景圖》의 화면을 보면 전체의 3/2 정도를 景物로 채우고 상부에는 朱線으로

² 동일한 소재를 그린 南九萬題 〈咸興十景圖〉에 대한 연구로는 洪善杓, 「南九萬題 咸興十景圖」, 『미술사연구』 2(미술사연구회, 1988) 참조.



도1 《咸興內外十景圖》표지



지도 《咸興內外十景圖》에 그려진 지역

구획한 후 그림과 관련된 글이 써 있다. 상부에 쓰여진 글은 南九萬(1629-1711)이 1674년에 지은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이다.³ 따라서 이 그림은 남구만의 두 글과 관련을 갖고 제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咸興十景圖記」와 「北關十景圖記」에 수록된 十景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지도 참조).

- 咸興十景圖 - 本宮, 祭星壇, 擊毬亭, 廣浦, 知樂亭, 樂民樓, 一遇亭, 龜景臺, 白岳瀑布, 金水窟
- 北關十景圖 - 安邊 鶴浦, 國島, 定平 道安寺, 甲山 掛弓亭, 安邊 釋王寺, 磨天嶺 城津鎮, 明川 七寶山, 鏡城 彰烈祠, 慶源 龍堂, 慶興 撫夷堡

³ 南九萬, 『藥泉集』第28, 韓國文集叢刊 132(民族文化推進黨, 1994), pp. 462-470.

《함흥내외십경도》를 「함흥십경도기」, 「북관십경도기」의 수록 순서와 비교하면 《함흥내외십경도》의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祭壇' 장면이 누락되었고 '城津鎮'이 '城鎮津'으로, '道安寺'가 '道光寺'로 오기되었다. 그림의 뒷면에는 먹으로 人名이나 手決 등이 落書되어 있는데 모두 한 사람의 필치로 생각된다. 좀먹은 자국을 보수한 양상으로 보아 후대에 배접을 다시 하여 보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고 1점이 누락된 후에 언젠가 재표구된 것으로 추측된다.

1674년에 남구만이 쓴 「咸興十景圖記」并序와 「北關十景圖記」并序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함흥십경도기와 서 갑인년

함흥은 聖祖께서 왕업을 일으킨 땅으로, 궁궐 두 곳과 왕릉 여섯 곳이 울창하여 영험스런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그 여파가 기슭을 나누어 빼어나게 특이하며 아름답고 우아하지 않음이 없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곳을 가려 10경을 얻었다. 깊고 엄숙한 本宮과 높고 탁트인 毬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조께서 일찍이 즐겨 머무르며 돌아보던 곳이니, 진실로 감히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밖의 山海一曲의 절승은 또한 각각 기이함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독차지하니, 비록 나라 안을 두루 다닌다 할지라도, 그 비슷한 것을 구하기란 또한 쉬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후략)⁴

북관십경도기와 서

내가 함흥에서 十景을 얻었으며, 도내 여러 읍의 산과 바다와 樓臺의 경치 좋은 곳을 또 열 곳 얻었다. 이외에 경흥의 백악과 길주의 만불과 영흥의 비류와 안변의 광석은 다만 그 이름만 듣고 그 땅은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란히 모사하지 못하였다. 아! 도내 이십여 읍의 절승으로 볼 만한 것을 합쳐도 그 수가 겨우 함흥 한 고을에 비교할 수 있으니, 어찌 기운의 맑고 정숙함에 모이고 흠어짐이 있으며, 또 사람이 관람하는데 가까울수록 자세하고 멀수록 생략하겠는가. 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關 밖의 산천은 본디 거칠다고 칭해지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도 마음과 눈을 장쾌하게 하며 원대한 생각을 할 만한 것들이 있다. 다만 지역이 황폐하고 궁벽지며 사람이 드물어서 그것을 크게 자랑할 자가 없을 따름이다. 산과 바다의 좋은 경물도 눈이 있는 자라면 다 볼 수

⁴ 咸興十景圖記 并序 甲寅 咸興 乃 聖祖興王之地, 二宮 六陵, 鬱鬱蒼蒼, 靈氣之所鍾, 其餘瓜分麓, 無不秀異, 而偉麗擇其最勝者, 得十景焉. 若本宮之深嚴, 毬亭之軒豁, 是聖祖所嘗肯宇而顧瞻者, 固不敢容喙, 其他山海一曲之勝, 亦各誇奇而擅美, 雖徧行國中, 求其彷彿者, 亦不可易得 (후략).

있지만 오히려 이처럼 인물되었는데, 하물며 광채를 감추고 궁벽된 시골에서 말라죽은 것들이 또 한 가지 지금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후대에까지 이름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⁵

서문으로 유추해 보건데 남구만이 직접 함흥·북관 지역을 실사한 후, 二十勝을 선정하였으며, 두 지역 모두 좋은 경치가 중요 선정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흥지역에서는 이성계 관련 사적이 중요하게 선택되었고, 북관지역에서는 외지고 궁벽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함경도의 절경을 적극 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구만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건의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북쪽 강변에 위치한 고을의 개발과 행정구역의 신설, 도로개설 등을 건의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적에게 침공로를 제공하고 북방 주민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기도 하였다.⁶

그는 「咸興十景圖記」를 쓰기 1년 전인 1673년에 吉州 이북 6진 여러 곳의 지도를 제작해 왕에게 바쳤는데, 이때 엮어진 <함경도지도>는 도내 각읍의 지리 등을 상세히 그린 것으로 중국의 方眼式 지도제작법을 받아들여 지도 위에 십리마다 '井' 자형의 모눈을 그리고 그 위에 거리를 계산하여 지형을 그려 나간 소위 '井' 자형 10리 劃井 지도였다고 한다. 남구만은 이러한 10리 획정 지도의 창안 후, 과거의 어느 關防 지도보다도 축척, 거리, 방위 등이 정확한 지도였다고 자부하고 있다.⁷

이처럼 북방의 개발을 적극 건의하고 지도제작 및 역사 지리에 보인 남구만의 지대한 관심은 「함흥십경도기」나 「북관십경도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각 장면에 대한 글을 쓰면서 지역의 유래·역사, 지리적 거리·방향, 경물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⁵ 北關十景圖記 并序 余於咸興，既得十景，而道內諸邑山海樓臺之勝，又得十處，此外慶興之白岳，吉州之萬佛，永興之沸流，安邊之廣石，只聞其名而不見其地，故不得並列於摹寫云。噫，合道內二十餘邑勝地之可觀者，其數僅與咸興一邑比，豈氣之清淑，有聚而有散歟，抑人之觀覽，近詳而遠略歟，是未可知也。關外山川，素稱巖區，而然於其間，亦有此壯心目寄遠想者，但以地荒僻而人罕到，無張大之者耳，山海景物之致，有目者皆可見，而猶湮沒如此，况韶光鏗彩枯死於窮鄉者，又可望其馳名於當世，而流聲於後代哉，可慨也已。

⁶ 姜錫和, 「朝鮮後期 咸鏡道の 地域發展과 北方領土意識」(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6.8), pp. 15-18 참조.

⁷ 한영우, 「우리 옛 지도의 발달과정」,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효형출판사, 1999), pp. 54-65.

III. 《咸興內外十景圖》의 製作時期

이제부터는 《함흥내외십경도》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함흥내외십경도》 중의 〈城津鎭圖〉와 〈七寶山圖〉는 韓時覺이 1664년에 그린 《北關誦唱錄》 중의 두 장면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북관수창록》은 1664년에 咸鏡南北道 別設 文武科試驗의 시험관으로 임명된 金壽桓(1629-1689) 일행이 함경도에 도착한 후부터 科試를 끝낸 뒤 七寶山을 탐승할 때까지 가진 誦唱詩와 6점의 實景畵로 구성되었다.⁸

먼저 《함흥내외십경도》와 《북관수창록》 중의 〈성진진도〉를 비교하면 도 2, 3, 두 작품 모두 우상부 원경에는 磨天嶺 산맥이 중첩해 있고 내륙쪽으로 城郭을 쌓았으며 해안가에 木柵이 위치해 있다. 그외에 鎭北樓와 朝日軒의 건물이 보이는 구도가 똑같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그 세부표현에 있어서 《북관수창록》의 섬세한 필치가 《함흥내외십경도》에 와서는 경물 묘사가 딱딱해지고 평면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동일한 구도를 보이는 水壘으로 그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진진도〉가 또 한 폭 있다⁴. 이 작품은 조선 중기 安堅派 화풍에 浙派 화풍이 결합된 17세기경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성진진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북관수창록》 중의 칠보산도⁵와 《함흥내외십경도》 중의 〈칠보산도〉⁶도 같은 조형상의 관계를 보인다. 《북관수창록》의 깊이감 있는 공간이 《함흥내외십경도》에서는 평면적인 것으로 달라지는 차이가 있으나 구도상의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밖에 앞에서 살펴본 〈성진진도〉⁴와 짝을 이루는 〈擊毬亭圖〉⁷ 또한 《함흥내외십경도》의 〈擊毬亭〉⁸과 구도가 유사하여 격구정과 섬, 원경의 포치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함흥내외십경도》의 〈城鎭津〉, 〈七寶山〉, 〈擊毬亭〉의 세 장면이 1664년의 《북관수창록》과 17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실경산수화와 동일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흥내외십경도》의 작품들은 17세기 후반의 구도를 충실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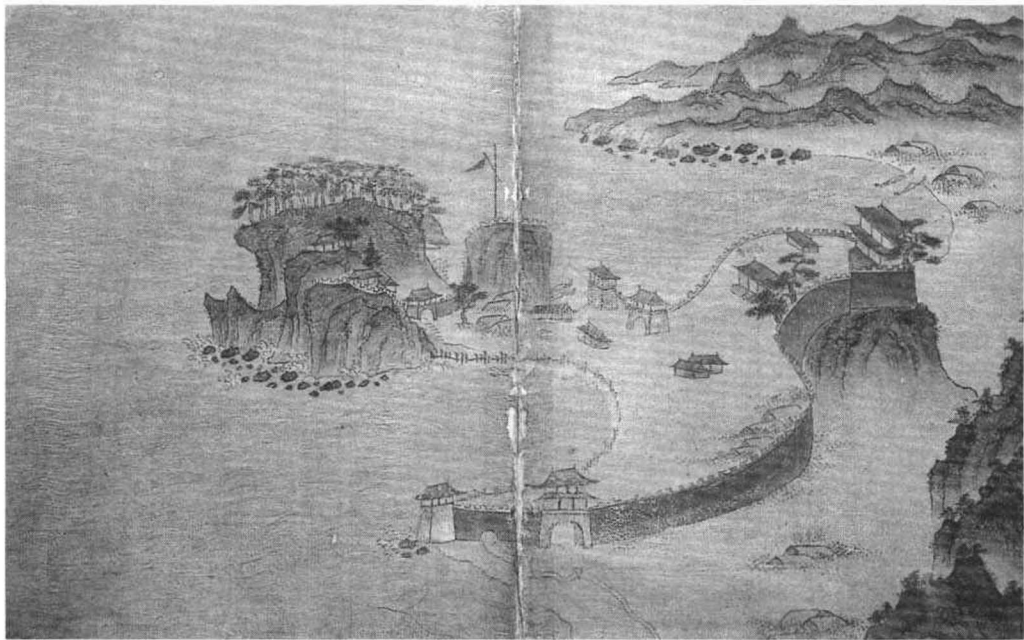
⁸ 《북관수창록》에 대해서는 李泰浩, 「韓時覺의 北塞宣恩圖와 北關實景圖: 鄭澈 眞景山水의 先例로서 17세기의 實景圖」, 『정신문화연구』 3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 207-235; 李健上, 「北塞宣恩圖와 北關誦唱錄: 韓時覺의 實景山水畵」, 『美術資料』 52(1993.12) 참조.



도 2 《咸興內外十景圖》, 城津鎮, 紙本彩色.



도 4 《城津鎮圖》, 紙本水墨



도 3 《北關洲唱錄》, 城津鎮, 1664년, 絹本彩色



도 5 《咸興內外十景圖》, 七寶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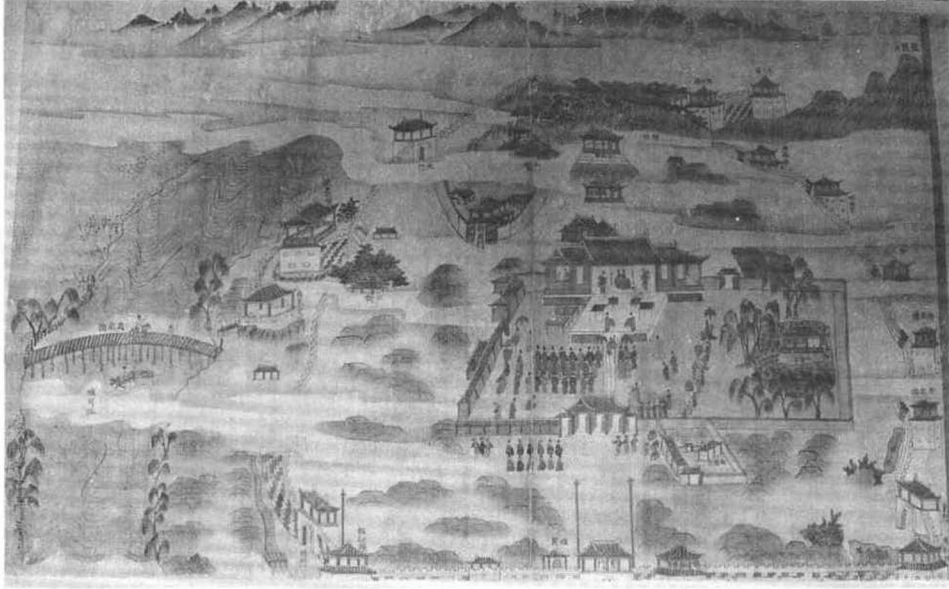
도 6 《北關誦唱錄》, 七寶山



도 7 《擊毬亭圖》, 紙本水墨



도 8 《咸興內外十景圖》, 擊毬亭



도 9 <北關別科圖>, 1731년, 絹本彩色

묘사방법은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74년작 원본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함흥내외십경도》가 1674년작 南九萬題 <咸興·北關十景圖>의 원본을 바탕으로 移摹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함흥내외십경도》를 통하여 유존작이 없는 南九萬題 1674년작 <咸興十景圖>, <北關十景圖>의 면모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함흥내외십경도》는 언제쯤 다시 그려졌을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北關別科圖>도 9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 유물은 1731년에 尹淳이 시험관이 되어 치른 북방지역의 과거시험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이미 1664년 韓時覺筆 <北塞宣恩圖>로도 제작되었는데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세부표현에는 차이가 많으나 <北塞宣恩圖>의 전체적인 구도가 <北關別科圖>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731년의 <北關別科圖>가 1664년의 작품을 본으로 하여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北塞宣恩圖>와 <北關別科圖>가 보여주는 관계를 볼 때 유사한 주제를 그릴 때에는 기존의 작품을 原本으로 하여 應用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北關別科圖>에 보이는 일부 세부표현이 《함흥내외십경도》에도 보이고 있어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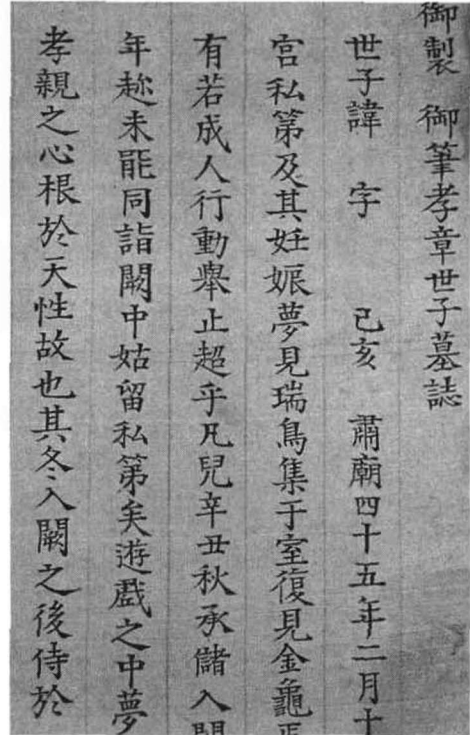
도 10 <北關別科圖>(부분), 1731년

《함흥내외십경도》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많다. 《북관수창록》 중의 원산 표현과 《함흥내외십경도》의 원산 표현을 비교하면 《북관수창록》의 산세가 《함흥내외십경도》에 와서는 경직되고 외곽선을 강조하면서 꼭지점에 청색을 강조하여 칠하는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특징은 1731년작 <북관별과도>에도 나타나 산등성이에 청색을 칠하고 있다. 또한 《함흥내외십경도》의 성벽에 보이는 네모진 돌출 묘사가 <북관별과도>에도 보인다¹⁰. 특히 《함흥내외십경도》에서는 크게 파도문을 그리며 굽이치는 물결묘사가 특징적인데 이러한 요소는 <북관별과도>에도 보이고 있다¹¹. 이처럼 《함흥내외십경도》가 <북관별과도>보다 거칠고 생략된 필치를 보여주지만 <북관별과도>에 보이는 특이한 묘사법이 나타나고 있어서 《함흥내외십경도》가 <북관별과도>가 제작된 1731년 이후에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함흥내외십경도》 상부에 쓰인 글의 書體는 字形이 길면서 劃이 끝날 때 삼각형으로 角이 지도록 마무리되어 있다. 이러한 글씨는 관청에서 書寫를 담당하던 寫字官들이 公文書를 쓸 때 많이 쓰는 서체로서 이런 예로서는 1729년 《魂宮都監稷帖》의 「御製御筆孝章世子墓誌」¹²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술한 <北關別科圖>의 세부 글씨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도 11 <北關別科圖>(부분), 1731년



도 12 作者未詳, 「御製御筆孝章世子墓誌」,
《魂宮都監櫻帖》, 1729년, 絹本墨書

보인다.⁹ 이러한 글씨체는 英祖年間に 유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함흥내외십경도》가 18세기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함흥내외십경도》는 남구만의 발의로 제작된 17세기의 原本을 보고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그 구도에 있어서 原本이 제작되었던 1674년의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17세기 후반의 다른 紀年作과 비교해 본 것처럼, 《함흥내외십경도》는 세부 묘사에 있어 과장과 왜곡의 표현이 보이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후반의 構圖의 原型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흥내외십경도》의 구도를 살펴봄으로써 17세기 후반 실경산수도의 다양한 구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⁹ 「御製御筆孝章世子墓誌」에 대해서는 李完雨, 『朝鮮中期書藝』(예술의전당, 1993), 圖 138의 도판해설 참조.

IV. 《咸興內外十景圖》의 구도

《함흥내외십경도》에 등장하는 각 장면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郡縣地圖인 〈海東地圖〉와 비교하면 《함흥내외십경도》가 실제 경물의 위치와 지형지물에 바탕을 두고 그려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1. 확대 · 축소 기법(Zooming 기법)

이러한 현상은 〈함흥십경도〉 중 함흥 관아와 함흥 본궁을 그린 장면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함흥십경도〉는 知樂亭, 咸興 本宮 등의 官衙 구역, 擊毬亭, 廣浦, 龜景臺의 江邊 구역, 一遇巖, 金水屈, 白岳瀑布의 內陸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知樂亭圖〉도 13는 멀리 盤龍山을 배경으로 官衙를 중심으로 그리고 있으며 城川江이 흐르는 오른쪽에 本宮과 擊毬亭을 그렸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花島와 竹島이다. 이들 각 경물의 위치를 〈해동지도〉에서 대응해 찾아볼 수 있다도 14.

성벽으로 둘러싸인 관아 구역이 강조되긴 하였으나, 〈지락정도〉는 관아와 강변 구역을 포괄하는 넓은 공간을 그리고 있으며 성벽과 물길 등이 강조되어 전체의 조망과 경물의 위치를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부에 쓴 제문을 보면, 관아 뒤 평탄한 언덕에 지락정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 본 전망에 감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쫓쫓년 여름 이 자리에 정자를 지었으며, 낙성하는 날 시험삼아 올라가서 보았다. 背後는 발 사이로 푸르고 영롱하게 펼쳐지며 앞으로는 七寶亭이 荷沼에 독립해서 마치 책상을 들고 와서 바치는 듯하다. 동서남의 三面은 커다란 들판이 끝이 없는데, 거울처럼 둥글고 손바닥처럼 평탄하다. 城川江과 湖連川이 좌우로 성곽을 안고서 交流하며 바다로 들어간다. 定·和·純·義陵은 실로 龍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기세가 있다. 慶興殿 本宮이 뽀뽀하게 모두 시야에 들어오고 擊毬亭이 아득히 구름 가에 있다. 정면으로는 앞에 都連浦를 마주하는데, 흰 모래가 물과 같다. 宣德·道

¹⁰ 〈海東地圖〉에 대해서는 『海東地圖』(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참조.



도 13 《咸興內外十景圖》, 知樂亭



도 14 《海東地圖》(부분), 咸興

안의 못산들은 구름 밖으로 늘어서 있다. 고래와 파도가 합쳐서 하늘과 잇닿았으며 세 섬과 형제 암이 별처럼 떨어져 있다. 가까이로는 성 안이, 멀리로는 수백 리 밖이 높고 낮은 대로 경치 좋기로 칭할 만한 것을 여기에 앉아서 거느리지 않는 것이 없다. 평화로울 때에는 눈에 맡겨 뜻을 즐겁게 할 만하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손가락을 꼽고 돌아보며 부를 만하다. 멀리까지 가서 오르는 수고로움이 없으며,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읊는 즐거움이 있으니,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갖추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¹¹

¹¹ 余於癸丑夏，構亭於茲地，落成之日，試登而觀焉，背後蒼翠，玲瓏點滴於簾箔之間，而前有七寶亭，獨立荷沼，若舉案而來獻，東南西三面大野無畔，其圓如鏡，其平如掌，而城川江湖連川，左右抱郭，交流而入海，定和純義諸郡，實有龍飛鳳舞之勢，而慶興殿本宮，鬱鬱皆入瞻望，擊毬亭縹渺雲邊，正作前對，都連浦白沙如水，而宣德道安諸山參差於雲海之外，鯨波合沓，與天相接，而三島及兄弟巖離立若星，近而一城之內，遠而數百里外，高下，以形勝稱者，靡不坐此而領略，時平則可以縱目而怡情，有事則可以指顧而號召，無遠出登陟之勞，有密邇絃誦之樂，雖謂之衆美咸具亦可矣(南九萬, 앞의 책, p. 463).



도 15 《咸興內外十景圖》, 咸興 本宮



도 16 《咸興內外十景圖》, 樂民樓

라고 하여 지락정에서 직접 본 전망에 의거하여 <지락정도>를 그리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락정도>는 지락정을 중심으로 관련 건물과 환경 간의 관계와 전망을 표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함흥본궁도>도 15는 이성계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조상들이 살던 곳에 자리를 잡고 거처한 함흥 본궁을 그리고 있는데, 본궁이 크게 강조된 반면에 주위의 다른 경물들은 축소되거나 생략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근경에는 격구정이 작게 그려져 있고 원경에 위치한 관아 구역이 구름 속의 모습으로 생략되었다.

반면에 <함흥본궁도>에서는 조그맣게 그려지던 격구정이 <격구정도>도 7에서는 중심적으로 근경에 확대되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멀리 보이는 산줄기가 盤龍山이며 그 아래 구름에 가려있는 것이 官衙임을 알 수 있고 그 아래에 本宮이 암시적으로 표현되고 근경에 花島와 竹島가 작게 그려졌다.

앞에 본 지락정과 마찬가지로 함흥 관아 주변을 그렸지만 <樂民樓>도 16는 城川 강변을 비중있게 그렸다. 함흥 관아의 전체 전망을 俯瞰視로 그린 <지락정도>와 달리 성천강 건너에



도 17 《咸興內外十景圖》, 廣浦

다른 부분은 축소하여 암시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보이는 것이다. 즉 함흥 본궁, 지락정, 악민루, 격구정, 광포 등은 상호 연관되어 포치되면서도 한 지역이 중심 경물로 등장하여 단독으로 그려질 때마다 확대 강조되거나 축소 생략되면서 경관의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보완되도록 그려진 것이다.

2. 構圖의 分類

〈북관십경도〉 역시 〈海東地圖〉와 비교해 보면 地理的 位置에 기초하여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으로 삼은 지역의 크기에 따라 첫째, 景觀과 景觀, 보다 큰 단위의 區域과 區域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廣域의 그림, 둘째, 한정된 구역의 경관을 보여주는 것, 셋째, 중심 景物이 있는 비교적 좁은 구역을 그린 것으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廣域의 예로 甲山에 위치한 掛宮亭을 그린 〈掛宮亭圖〉도 18를 보면 넓게 펼쳐

서 올려다 본 악민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악민루 뒤에는 盤龍山과 官衙를 포치하였으며 전경에 城川江이 흐르고 萬歲橋가 놓였으며 넓은 白沙場이 펼쳐져 있다. 근경에는 宣德鎮, 廣浦, 오른쪽에는 花島, 竹島를 그려 넣었다.

이러한 등장 경물 중에서 하부에 작게 등장하던 광포 지역을 확대하여 그린 〈廣浦圖〉도 17가 있다. 광포의 전경에는 大頭山이 위치해 있고 내륙쪽의 경물들은 遠景에 중첩해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흥의 각 지역을 그린 것을 보면 한 화면에 관아를 포함한 내륙과 강변 지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치 카메라로 줌을 잡는 것처럼 확대하여 그리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화면의 구성상 중요 부분은 비중을 크게 하고



21



22



23

도 21 《咸興內外十景圖》, 釋王寺

도 22 《咸興內外十景圖》, 鶴浦

도 23 《咸興內外十景圖》, 彰烈祠

도 24 《咸興內外十景圖》, 金水窟

도 25 《咸興內外十景圖》, 道安寺

도 26 《咸興內外十景圖》, 國島

도 27 《咸興內外十景圖》, 一遇疊



도 28 《咸興內外十景圖》, 龜景臺



도 29 《咸興內外十景圖》, 白岳瀑布

는 모습을 그렸다. 〈一遇躡圖〉도 27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모두 중앙에 핵심 경물을 포치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龜景臺圖〉도 28의 바닥은 格子文이 있어서 어색하나 남구만의 글을 보면 원래 바위 밑 돌들이 거북등처럼 네모난 돌이 편평하게 깔려 있어서 龜景臺라 이름한다고 하였다.¹³ 따라서 이러한 어색한 묘사도 경물의 특징에 근거하여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白岳瀑布圖〉도 29는 폭포를 중심에 둔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白岳庵을 지나 石槽에 고였다 흐르는 폭포의 모습,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石臺의 모습을 그렸다. 조선 전기 이래 문헌에는 朴淵瀑布 등 폭포 그림에 대한 기록이 많다.¹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작

¹³ 臺下水際, 廣石平鋪, 斑斑爲龜背之紋, 石脉之黃白青赤, 交錯界道, 畫成井區, 前後相連, 大小若一, 其繪綵之分明, 雖摹之以筆, 殆無以過也(南九萬, 앞의 책, p. 464).

¹⁴ “朴淵瀑布圖” “發岩瀑布圖” “朴淵圖” “青山瀑布圖” “華山瀑布圖”에 대한 기록이 있다.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 卷2(一志社, 1991), pp. 14-15; 卷4(一志社, 1991), pp. 46-49.

품이 없었는데 단독의 폭포를 그렸다는 점에서 繪畫史的으로 의미가 큰 작품이다.

이처럼 《함흥내외십경도》의 각 장면은 작가 마음대로 임의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현지의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함흥내외십경도》가 17세기 후반 실경산수의 구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임을 인정할 때, 실제 경물의 위치를 충분히 고려하며 그린 실경상수화의 존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V. 《咸興內外十景圖》를 통해 본 南九萬題〈咸興十景圖〉,〈北關十景圖〉의 성격

남구만제〈함흥십경도〉,〈북관십경도〉의 원본은 아니지만 《함흥내외십경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原本의 구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대의 移摹本인 《함흥내외십경도》를 통하여 〈함흥십경도〉와 〈북관십경도〉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地理學者이자 北方 經營의 行政家였던 南九萬의 제작의도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郡縣地圖類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을 참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남구만의 지도 및 회화지도의 제작 양상을 해석하는데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먼저 1630년에 편찬된 경상도 善山의 邑誌인 『一善志』를 보면, 1477년 金宗直이 善山府使로 재임 시에 쓴 善山地圖에 관한 글이 수록되었는데, 김종직의 글에 의하면 畫工에게 명하여 산천, 마을, 창고, 역 등을 한 폭에 그리게 하고, 인구, 경지, 거리 등을 써 넣게 하여 黃堂의 벽에 걸게 하였다고 하였다.¹⁵

이 글을 통하여 郡縣의 수령이 지역의 통치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의 지도를 그려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도 특히 소규모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郡縣지도는 지역을 구체적이고 공간적으로 파악하는 수단이 되어 행정과 통치의 자료로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 후기로 이어져 丁若鏞의 『牧民心書』에 보면 수령으로 취임하면 고을의 지도를 작성케 하였으며, 이를 政堂 벽에 걸어두었다고 하였다.¹⁶ 이렇듯 지도 제작은

15 郡縣地圖의 例와 機能에 대해서는 楊普景, 「郡縣地圖의 발달과 《海東地圖》」, 『海東地圖 解說·索引』(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pp. 60-73 참조.

16 楊普景, 위의 논문, p. 62.

한 지역을 책임진 사람에게 관찰구역에 대한 실정과 정보를 파악케 하고 행정력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702년(숙종 29) 제주도 節制使에 임명된 李衡祥이 직접 제주도 防禦의 실태와 郡民의 風俗을 살피고, 畫工 金南吉에게 40圖를 그리게 한 《耽羅巡歷圖》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화첩의 처음과 끝에는 地圖가 있으며 중간에는 각 지역 및 勝景을 그리고 각 장면에는 地名과 관련 정보를 써서 군민의 생활을 담고 있다.¹⁷ 이러한 그림은 통치지역을 순찰하고 그 일정을 기록하여 그 지역에 일정한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郡縣地圖나 繪畫地圖의 機能을 참고로 할 때 《함흥내외십경도》에 보이는 몇 가지 특색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군현지도처럼 넓은 공간을 그리고 있지는 않으나 화면에 地理的 관심이 투영되어 現地의 地形地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점, 화면 상부에 특별히 구획하여 지역의 역사와 경물의 특징, 중요성 등을 기록한 점, 城壁, 鎭, 堡 등 군사, 행정시설을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이 특이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함흥십경도〉나 〈북관십경도〉의 성격이 지방 통치와 관련한 실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 나아가 북방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朝廷에서 논의가 분분할 때 남구만이 북방지역의 군사적, 입지적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행정력과 북방정책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VI. 結論

《咸興内外十景圖》중의 城津鎭, 七寶山의 장면을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북관수창록》중의 城津鎭圖, 七寶山圖와 비교한 결과 양식상의 차이는 보이지만, 17세기 후반의 구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함흥내외십경도》는 原本을 바탕으로 18세기 이후에 모사되었다고 생각되나 현재 원본이 유존되지 않는 17세기 후반 남구만제 〈함흥십경도〉,

17 李衡祥, 『耽羅巡歷圖』, 고창석·김동전 해설(제주시청 문화체육과, 1994).

58 《咸興内外十景圖》에 보이는 17세기 實景山水畫의 構圖

〈북관십경도〉의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함흥내외십경도》를 조선 후기 〈海東地圖〉의 경물 위치와 비교해 보면 그림의 각 景物이 임의대로 포치된 것이 아니라 現地의 地形地物을 바탕으로 地圖的 觀點에서 이해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특징으로는 먼저 확대·축소 기법을 들 수 있다. 함흥의 각 지역을 그린 것을 보면 중요한 부분은 비중을 크게 하고 다른 부분은 축소하여 암시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을 보인다. 따라서 함흥의 인근 지역들이 상호 연관되어 포치되면서도 일정 지역이 중심 경물로 등장할 때마다 다른 지역이 축소·생략되면서 경관의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보완되도록 그려졌다.

구도상으로는 표현대상으로 삼은 공간의 크기에 따라 첫째, 景觀과 景觀, 보다 큰 단위의 구역과 구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廣域의 구도, 둘째, 전자보다는 좁지만 복수의 경관이 있는 한정된 구역을 보여주는 것, 셋째, 중심 景物이 있는 비교적 좁은 구역을 그린 것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렇게 함흥과 북관 지역을 그리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구만의 지리학자적 면모가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함흥·북관십경도〉를 제작하기 1년 전에 함경도 지도를 제작하면서 얻은 지리 및 지형지물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주제어: 《함흥내외십경도》, 남구만, 〈함흥십경도〉, 〈북관십경도〉

ABSTRACT

The Composition of the “Real Scenery” Paintings (Shilgyeong-
Sansuhwa 實景山水畫) of the 17th Century

Examining the 《Hamheung-Naewae-Shibgyeong-do 咸興內外十景圖》

Lee Soo-mi

In recent studies involving areas of paintings or pictorial items, certain types of old maps featuring some pictures of the landscape for graphic effects, are labeled as Pictorial Maps. To the researchers of this area, certain touches and sketches from those Pictorial Maps which might reveal some valua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of the past would probably be the ones that are most anxiously sought for.

The painting which is going to be examined here is the 《Hamheung-Naewae-Shibgyeong-do 咸興內外十景圖》. The item features the description of the landscape of the Hamheung region and the nearby areas, and is currently in custod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item shows a mixed quality, as it is essentially a map, while it is also a painting. Current researches consider this type of creative fashion to have been very popular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as the “Real Scenery” paintings (實景山水畫) of that era seem to have been containing both pictorial qualities and map-like qualities at the same tim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is painting fashion urge us to explore the inherent qualities of this fashion instead of only considering this fashion to have been a mere predecessor to the 18th century’s “true-view” scenery painting. Hence, the internal composition of the 《Hamheung-Naewae-Shibgyeong-do》 was picked up for examination, as

a perfect example and embodiment of that creative fashion.

The designation number of this portable picture album is Object No. Shin-15776. The item is composed of 19 leaves (pages) of pictures, and the pages are colored. The cover has the title 《咸興內外十景圖 *Hamheung-Naewae-Shibgyeong-do*》 on it. Contents, 9 places from the Hamheung area, and 10 other places of the Hamgyeong-do region are illustrated in this album.

Compared to the Seongjinjin-do (城津鎮圖) or the Chilbosan-do (七寶山圖) paintings from the 《*Bukgwansuchang-rok (Album of pictures depicting the travel to the Northern land)*》 painting, it seems like the 《*Hamheung-Naewae-Shibgyeong-do*》 did inherit the composition style of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Presumably, the composition style must have also been shared by paintings like the 《*Hamheung-Shibgyeong-do (Ten Magnificent Landscape Scenes of the Hamheung Region)*》 or the *Bukgwan-Shibgyeong-do* (Ten Magnificent Landscape Scenes of the Northern Area) which were all created by Nam, Gu-Man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original painting is missing, and the current paintings are believed to have been copied in the 18th or 19th century).

The description pattern of the 《*Hamheung-Naewae-Shibgyeong-do*》 indicates that the illustrated objects of the landscape were not arbitrarily or randomly positioned in the picture, but carefully coordinated to depict the actual landscape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This becomes even clearer when the item is compared to other maps which were created in that time period. Visual emphasis on certain areas confirm this observation, as important places were magnified while other circling areas were reduced, to secure distinct views of those particular center areas while also allowing the entire picture to show the overall situations of the whole region.

Various composition styles are displayed in this item, but the most dominant fashions could be named as follows: 1) A wide view which allows the viewers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objects and the overall landscape, 2) A smaller view which covers a limited area but still allows the viewers to grasp multiple landscape patterns, and 3) the smallest view which only provides the viewers with information regarding a single object.

Items like this should have tremendously benefitted from the previous figures'

ingenuity and efforts. In this case, the creative skills and geographical knowledge of Nam, Gu-man, and the outstanding qualities of the Hamgyeong-do maps (which were created nearly a year before the *《Hamheung & Bukgyeong Shibgyeong-do》* was completed), would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creation process of this item.